전북 경제통상진흥원 소셜벤처 경연 참가자 모집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는 7월 15일까지 '2016 소셜벤처 경연대회'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권역예선-

권역본선-전국대회 절차를 통해 옥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전북지역

참가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

성법, 구체화를 위한 교육 및 멘토

지원 및 접수방법은 모집 홈페이

지(http://www.2016svc.com/)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소셜벤처 사업화 계획

을 가진 도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

신청분야는 청소년 아이디어, 솔루

분야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포

션, 창업 아이디어, 글로벌 총 4개로

링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참가자를 모집한다.

원하는 대회이다.

석을 가려낸다.

접수할 수 있다.

구성됐다.

문의하면 된다.

### 조합원 간선제 아닌 이사회 호선으로

##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권한도 대폭 축소키로

농협중앙회의 역할이 조합 지도와 지 원 기능에 적합하도록 농협법이 개정

권한이 대폭 축소된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은 현행 조합원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의 중앙회 · 경제지주 역할 정립 방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 역할을 회원 조합 육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제사 업 관련 역할과 임원 규정이 삭제된다. 비상임인 농협중앙회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회장의 경제사업 관련 역할은 농·축산경제 대표, 전무이사 등 시업 전담대표에 위임된다. 전결처리 업무 들은 각 사업전담대표의 고유업무로 명확화할 방침이다. 선출방식도 조합 원 선출이 아닌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

조재호 농업정책국장은 "중앙회장은 조합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도록 할 예 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사업이나 신용사업 관련 직접적 권한은 모두 사 리지는 것"이라며 "굳이 직접 선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이사회 호선 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지주는 경제시업 전문성 강화 목 표를 신설하고 시장경제 대응에 적합 하도록 조직 · 임원 선임방식을 법 규 정이 아닌 정관으로 자율화한다.

기존 중앙회 축산경제 및 축산경제대 표에 적용하던 농협법상 축산경제특례 는 경제지주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00년 농축협 통합 과정에서 축 협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축산경제 대표를 축협 조합장들이 뽑는다는 특 례조항을 넣은 바 있다.

조재호 국장은 "경제지주대표와 축산 경제대표를 따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농협 내부의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8~9월 국회 /안진수 기자 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얀 부드러움에 빠지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민미 술관 앞에서 열린 '국순당 아이싱 청포 도 캔디소다'출시행사에서 모델들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 '톡톡튀는 S루키' 새만금 견학

#### 농어촌공 신입사원 등 20명

새만금, 매력적인 새만금을 만들 기 위해 새만금 S루키가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시업단(단 장 박종대)은 19일 새만금사업 추 진과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조기점 검하고 새만금의 미래성장 동력 마 련을 위해 '톡톡 S루키, 새만금을 디자인한다'라는 주제로 현장견학 을 실시했다.

이날 견학은 公私 신입시원 및 젊 은 직원들로 구성된 S루키 20여명 이 새만금홍보관 등 새만금시업 현 장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개선사항

을 조기 발견하고 시대적 감각에 맞는 새만금만의 트렌드를 적용하 기 위해 실시되었다. 또한 직원들의 창의적 발상 도출을 위해 '새만금 상설공연 아리'관람으로 감성을 자극하고 정형화된 틀을 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박종대 단장은 "톡톡 튀는 젊은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생동 감있고 다시 찾고 싶은 새만금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고 말하고 "또한 미래성장 동력 마 련은 물론 젊은 직원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 /김제=곽노태 기자 조했다.

# 직장인 40% 퇴출 압박에 '벌벌'

#### 부장급이 두려움 가장

불경기로 인해 퇴출 압박이 직장 인들의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4명은 퇴출 압박 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 인 1,097명을 대상으로 '회사로부 터 퇴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 끼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38.7%가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답

직급별로는 '부장급'(56%), '과장 급'(48%), '임원급'(47.4%), '대리 급'(35.7%), '사원급'(34.7%) 등의 순이었다.

퇴출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로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41.6%, 복수

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 로 '회사 실적이 좋지 않아서' (38.4%), '개인 성과가 부진해서' (20.7%), '타 업종들도 다 불안해 서'(17.6%), '직속 상사와의 마찰 이 있어서 (17.2%) 등의 이유를 들 었다.

실제로 응답자의 21.2%는 회사로 부터 퇴출 압박을 받은 경험이 있 다고 밝혔다.

직급별로는 '임원급'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장급' (32%), '과장급' (25.4%), '대리급' (23.5%), '사원급' (17%)의 순으로 직급이 높을수록 퇴출 압박을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퇴출 압박을 받은 방식은 '불가 능하거나 불합리한 업무 지시' (32.6%,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

계속해서 '상사 또는 인사담당자 와 개인면담'(29.6%), '유언비어, 소문 퍼짐'(18.9%), '일을 시키지 않음'(17.6%), '자리비움 수시보고 등 과도한 관리 (14.6%), '현재 직 무 관계 없는 타 부서 발령 (13.3%), '승진 누락'(12.4%), '회 식 제외 등 은근히 따돌립'(11.6%)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들은 퇴출 압박을 받은 이유로 '직속 상사와 마찰이 있어서' (30.9%,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 택했고, '회사 실적이 좋지 않아서' (30%)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개 인 성과가 좋지 않아서'(20.2%), 'CEO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아서' (15.5%), '소속 부서의 성과가 좋지 않아서'(12.4%), '소속된 부서 역할 이 축소되어서 (10.3%) 등이 있었 /신광영기자

# '문화의날' 공연 개최

#### 6월 22일, 본점 3층 대강당

전북은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 택)은 오는 6월22일 전북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제6회 JB카드와 함 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행시는 전북은 행에서 도내 문화・예술・공연분야 의 사회적기업을 초청해 활동무대 를 마련하고, 문화소외계층에게는 정기적인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3월, 6월, 9월, 12월 넷째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국악뮤지컬 '황후 심청' 은 심청전 을 각색해 작·편곡된 국악기 합주 로 마당극을 연상케 하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악과 판소리 의 조화를 통해 즐거움이 넘치는 소리음악극으로 관객들을 만날 계 획이다.

'문화포럼 나니레'는 전주의 문화 콘텐츠를 국악과 접목시켜 다양한 분야의 문화공연을 펼치고 있는 퓨 전국악 전문 사회적기업으로,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창극공연, 어린이 공연 등으로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관람은 8세 이상 전북도민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공연관람 접수는 6월 12일까지 전북은행 홈페이지 (www.jbbank.co.kr)를 통해 선착순으 로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은행 사회공헌부 250-7496/7154로 하면 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 관객과 연 주자, 소리꾼이 하나 되는 공연을 관람하며 바쁜 일상에 서 즐거움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될 이번 공연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 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 상금과 최대 5,000만원의 창업지원 금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의 사전 선발 기회가 부여된

자세한 사항은 (063-711-2112)에

/신광영기자

편의점 '여름 디저트' 전쟁 시작 편의점의 '여름 디저트' 전쟁이 시작됐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9

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첫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다. 더위를 피해 시원한 음료와 디저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고있는 가운데 편의점들은 속속 여름 용 디저트를 출시, 손님맞이에 나섰다.

편의점 CU는 19일 얼려먹는 열대과일 '미스망고바'와 '미스파인애플바'를 출 시했다.

CU는 이를 위해 태국PRT사와 협약을 맺었다. 과일 과일 아이스바는 지난해 여름(5~8월) 과일 카테고리 매출을 전 년동기 대비 22.1%나 상승시킨 효자 품 목으로, CU는 올해도 과일 아이스바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여름철 간식으로 요구르 트를 얼려 먹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 '아이스요구르트'와 '요구르트젤 리'등 요구르트 디저트 2종을 출시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지는 "최근 먹거리는 맛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호기심까지 유 발하는 상품이 인기가 높다"며 "상품의 특성을 살린 재미있는 먹거리로 먹거리 트렌드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 중소기업계, 조달청에 현장 애로사항 건의

중소기업계가 조달청에 현장애로사 항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양호 조달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양호 조달청장 과 30여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 중소기업 조달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조합MAS 등록 기업에 대한 차별해소 ▲조달우 수제품 중견기업 참여범위 조정 ▲ MAS 2단계경쟁 내 물량 쏠림현상 방 지 및 약자지원 평가방법 개선 등 14 개의 현장애로 해결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공정하 고 투명한 조달시장을 조성하고자 하 는 조달청의 국정과제는 중앙회가 추 구하는 바른 시장경제 확립을 달성한 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며 "앞으 로도 현장과 조달청의 소통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 했다.

구독문의 288-9700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